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7월 금리인하 가능. 일부는 관세 영향 확인을 위한 인내 강조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전주비 감소 IMF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높다고 평가
  - ECB 주요 인사, 신속한 추가 금리인하 불필요, 무역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필요
  - OPEC,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관세, 2/4분기 기업실적 발표 기대감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업실적 기대, 연준 인사의 바들거림적 발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으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감소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對브라질 高관세 부과 여파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69.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1.7원, 0.1% 상승). 한국 CDS 약보합

|    |      | 7/10일   | 7/9일    | 전일대비   |                 |       | 7/10일   | 7/9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6,280.5 | 6,263.3 | +0.27%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4.35%   | 4.33%   | +2bp   |
|    | 유럽   | 552.93  | 549.96  | +0.54% |                 | 독일    | 2.71%   | 2.67%   | +3bp   |
|    | 중국   | 3,509.7 | 3,493.1 | +0.48% |                 | 영국    | 4.60%   | 4.61%   | -2bp   |
|    | 일본   | 39,646  | 39,821  | -0.44% | CDS<br>5y       | 한국    | 25bp    | 25bp    | -0bp   |
|    | 한국   | 3,183.2 | 3,133.7 | +1.58% |                 | 중국    | 46bp    | 47bp    | -1bp   |
| 환율 | 달러지수 | 97.65   | 97.56   | +0.10% | 위험<br>지표        | EMBI+ | -       | 360     | -      |
|    | 유로화  | 1.1701  | 1.1720  | -0.16% |                 | VIX   | 15.78   | 15.94   | -1.00% |
|    | 엔화   | 146.26  | 146.33  | +0.05% |                 | WTI유  | 66.57   | 68.38   | -2.65% |
|    | 위안화  | 7.1782  | 7.1807  | +0.03% | 원자재             | 구리    | 554.8   | 544.4   | +1.92% |
|    | 원화   | 1,370.0 | 1,375.0 | +0.36% |                 | 금     | 3,324.1 | 3,313.7 | +0.31%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연준 주요 인사, 7월 금리인하 가능. 일부는 관세 영향 확인을 위한 인내 강조

- 연준의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기에 7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 현행 통화정책은 과도하게 긴축이라고 첨언. 그의 이번 발언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위원들과 다른 의견이어서 연준 내 위원들 간 이견이 있음을 의미
- 또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월러 이사는 계속해서 대차대조표를 활용한 경기부양 효과에 의구심을 표현. 한편,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의 경쟁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결제 비용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연내 2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관세 인상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부에서 두려워하는 만큼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 또한 관련 여파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금년 4/4분기 혹은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피력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연준의 금리인하를 촉구. SNS를 통해 경제는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전주비 감소. IMF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높다고 평가

- 7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전주비 0.5만건 감소한 22.7만건 기록. 이는 고용주가 직원 해고에 신중하다는 의미. 다만, 연속 청구건수는 196.5만건으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구직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IMF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 이에 안정적인 무역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

## ■ Goldman Sachs,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 JPMorgan은 금리 상승 리스크 지적

○ Goldman Sachs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 재정 불안, 일부 투자자의 脫미국 등으로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달러화가 다시 위험자산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분석. 한편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시장에서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이 상당한데 시장에서는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 ■ ECB 주요 인사, 신속한 추가 금리인하 불필요. 무역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필요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여건의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인 부이치치 위원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연율 2%)를 일시 하회해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서 금리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

## ■ 일본 6월 기업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금리인상 압력은 다소 완화

○ 6월 기업물가는 전년동월비 2.9% 올라 전월(3.3%) 대비 둔화되며 10개월 만에 3%대를 하회. 이는 최근의 에너지 및 금속 가격 하락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동향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압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

## ■ OPEC,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을 반영

○ 향후 4년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 특히 금년의 경우 1.050억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이전(각각 1.080배럴) 비해 약 3% 낮은 수준.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 등이 거론. 다만,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며, 정점 통과 시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 ■ 비트코인 가격, 11만6천달러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1.6만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기록. 시장에서는 ETF와 기업의 지속적인 매수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7/11일 현지시각 기준)

○ 영국 ECB 파네타 및 치폴로네 위원 발언, 영국 5월 산업생산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글로벌 통화체제, 달러화 중심에서 다극화 전환 시 금융 불안 증폭될 우려 - Financial Times

(The frightening world without the dollar)

- 4월 이후 달러화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의 달러화 이탈이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체제가 유로화·위안화·암호화폐가 경쟁하는 다극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 조짐이 닉슨 쇼크 이후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달러화 지위의 약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소지. 안전자산 부족으로 금리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고, 거래 비용도 급증할 우려. 유로화 혹은 위안화의 달러화 대체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에 불과

### ■ 미국 트럼프 관세의 충격, 매출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 두드러질 소지 - 블룸버그

(Fresh Tariff Games Are Leaving Small Businesses Dazed)

-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파괴적이고 끊임없는 불확실성은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대기업은 적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 증가 등으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
- 실제로 중소기업의 44%가 매출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Alignable), NFIB의 중소기업낙관지수도 연초 이후 큰 폭 하락(105.1→98.6). 50인 미만 소기업의 일자리 지수(PSBEW)도 6월 99.65로 '21년 이후 최저. 중소기업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해고와 사업 폐쇄 등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위험

### ■ 연준의 독립성,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유지될 전망 - Financial Times

(Can the Fed stay independent under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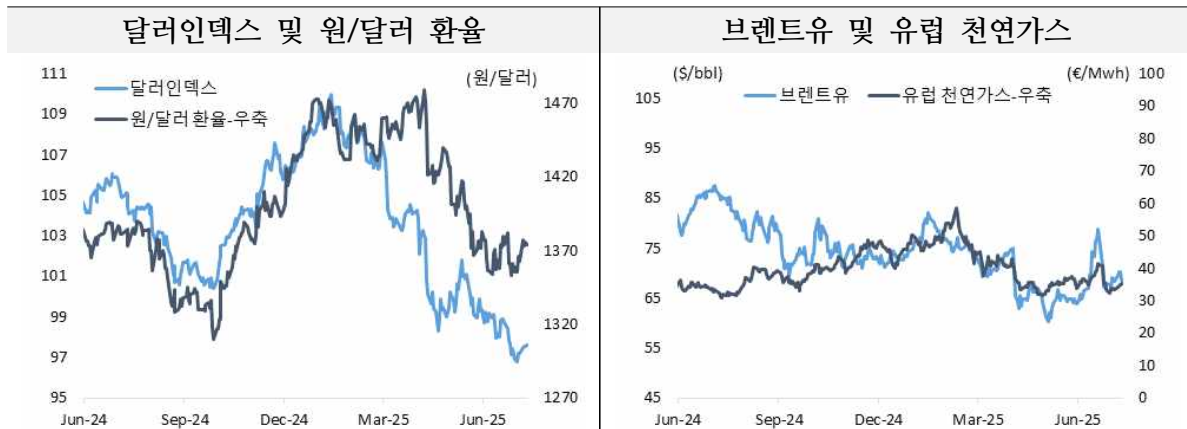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 비난하면서 금리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차기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까지 언급하여 압박 수위를 강화. 이에 따라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 그러나 역사적으로 연준은 의회의 지지와 FOMC의 집단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정치적 압력에 대응. 또한 최근 일부 이탈에도 다수의 위원들은 파월 의장을 지지. '70년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번스 의장의 실패가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있어, 트럼프가 지명할 차기 의장도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 독립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새로운 지침보다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소지 - Financial Times**  
(Trump's tariff shambles is a helpful warning to the world)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글로벌 무역이 1930년대의 보호주의를 탈피하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도록 다른 국가에도 방향성을 제시. 하지만, 트럼프의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무역정책은 자국의 성장 둔화 전망을 유도하고 있으며,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여타 정부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
  - 아울러, 트럼프 관세정책은 영국 외 회원국의 EU 단합을 촉진한 브렉시트와 비슷한 사건일 가능성. 한편, 세계 각국은 미국 정책의 모방보다 피해 최소화 노력에 집중. 또한, 중국은 친환경 등 미국 정책으로 인한 후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이에 각국 무역 정책의 트럼프식 전환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주요 중앙은행, 헤지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레버리지 확대에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Central Banks Are Flying Blind on Hedge Fund Leverage)
- **미국의 對브라질 50% 관세,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 보복 의도가 다분 - 블룸버그**  
(50% Tariffs Are About Punishment, Not Trade)
- **중국, 對美 협력 강화하는 동남아 국가에 보복과 화유 사이에서 딜레마 직면 - Reuters**  
(China treads a fine line with its trade warning)
- **영국 정부의 재정 계획, 실효성 부족 등으로 성장 및 안보 개선에 미흡 - 블룸버그**  
(Fiscal Illusions Won't Bring the UK Growth — or Security)
- **구리 가격 상승, 트럼프 불확실성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제한적 예상 - Financial Times**  
(Global copper market weighs impact of Donald Trump tariff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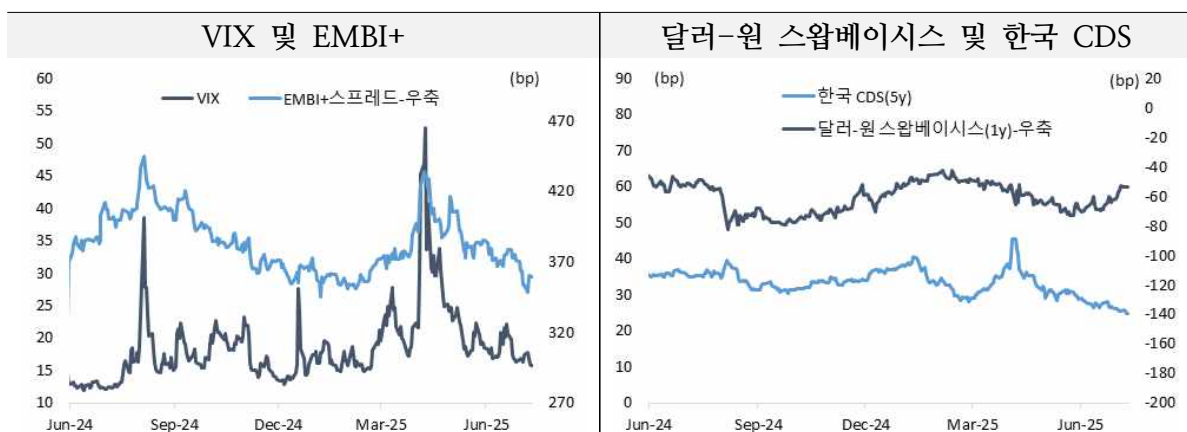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